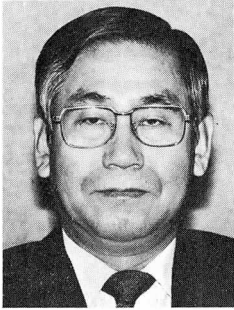




〈모스크바 「人類生存을 위한 環境포럼」 參觀記〉

人類는 自殺하려는가?



하루 生物 100種 地球서 멸종

可視的 軍事위협 보다 生態的 위협이 더 무서워

蘇의 「地球的교육프로」...韓國學生 교류희망

金 鎮 炫

〈東亞日報 論說主幹〉

[편집자주] 이 글은 지난 1월15일부터 모스크바 소빈센터에서 열린 「人間生存을 위한 환경과 발전의 人類포럼」에 참가했던 필자의 글로서 1월24일 동아일보에 보도된바 있어 주목을 끌었는데 소련의 「지구적 교육프로」등 환경교육에 관한 미래상등을 다시한번 되새기길 바라면서 필자의 쾌락을 받아 신게되었다.

1·16부터 모스크바 소빈센터서 開會辭없이 默念으로 시작

「체르노빌에서 희생된 이들이여, 보팔에서 희생된 이들이여, 전쟁에 희생된 이들이여, 태풍과 한 발에 희생된 이들이여, 농약에 희생된 이들이여, AIDS와 化學物에 희생된 이들이여, 大氣오염에 희생된 이들이여, 가난에 희생된 이들이여, 썩시즘에 희생된 이들이여, 商業主義에 희생된 이들이여...」. 회의는 개회사로 시작되지 않고 佛敎 카톨릭 新敎 回敎 힌두교 유대교 아메리칸인디언 신앙을 대표하여 印度正敎會僧正이 환경재난으로 희생된 이(사람과 生物)들에게 올리는 默想으로 시작됐다.

지난15일 모스크바 소빈센터에서 열린 「人間生存을 위한 환경과 발전의 人類포럼」은 하나의 거대한 웅변장이었다. 경고의 웅변, 절망의 웅변, 간절한 웅변,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약한 것인가를 증명하

는 자비의 웅변, 그리고 마지막날 19일저녁 6시부터 크렘린宮안에서 當代의 주인공 고르바초프의 30여분간의 웅변으로 일주일의 끝을 맺었다.

환경이란 問題群의 개념은 이제 惑星 遊星의 시스템으로

公害나 自然보호니 하는 말은 이제 시대착오가 됐다. 이제 환경이라는 「問題群」의 개념은 人間을 넘어 生物, 生物을 넘어 그리고 나라와 지역을 넘어 惑星 遊星의 시스템으로 넘어왔다.

고르바초프는 호모사피엔스(人類)는 자살하려는가 묻고 가시적 군사위협보다 生態的위협이 더 크에도 일반국민이 잘모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혀 새로운 제안이 아님에도 환경보존을 위해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무기를 버리고 核실험을 완전 종식시킬 때가 왔다고 끝을 맺을때 80여개국에서 온 대표들은 발을 구르며 기립박수를 계속했다.

에브젠지 벨리코브, 레스터 브라운, 칼 세이건, 알렉시 야브로코브, 레오나르드 델갈은 세계적 환경문제전문가들의 경고나 UN의 인구 개발 아동복지기관들의 발표는 우리에게 환경문제에 관한 인류의 하나됨의 각오, 환경전쟁에의 行動, 그리고 存在의 場과 時間에 대한 價値觀의 變化를 요구하고 있다.

2000년까지 오존층파괴物質 추방

이들의 주지는 이렇다.

△ CFC 할론 기타 人造化學물질이 원인이 된 오존층의 파괴는 動植物의 생활을 위협하고 늦어도 2000년까지는 이들 물질을 추방해야 한다.

地球의 二酸化炭素 매년 0.5%상승

△ 지구의 이산화탄소는 産業化 이전보다 25%나 올라가 있고 매년 0.5%비율로 상승한다. 이 온실효과를 방지하지 못하면 21세기 중반에는 바다표면이 올라가 인간들은 집을 잃고 농업지대엔 한발계절이 길어져 농사를 망칠 것이다.

水質오염과 自然감소의 심각성

△ 水質오염과 자연수의 감소가 심각해지고 특히 中國 인도 중동 소련南部가 심하며 河床이 낮아지고 있다.

森林急減로 洪水·토양파괴와 地球의 高温化 原因이되다

△ 土表가 쓸려가고 있어 1년에 2천만의 양곡을 생산할 후진국 농민 9천만이 농사지를 흙이 사라지고 있다. 森林의 急減은 洪水와 토양파괴뿐 아니라 지구高温化의 원인이며 특히 삼림연구소는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山林훼손· 환경惡化로

매일 약 100種의 生物이 멸종

△ 환경의 악화, 특히 삼림의 훼손은 매일같이 약 1백種의 생물들을 이 지구상에서 멸종시켜 生態系 균형을 깨고 있다.

技術集約농업이 파괴적환경造成

환경安定性 영농方式 考案돼야

△ 비료 농약 및 대량의 관개시설을 요하는 농업은 인간의 건강과 生態系균형을 파괴하고 기술집약적



모스크바 소빈센터에서 열린 「人間생존을 위한 환경과 발전의 人類포럼」 포스터

농업은 더욱 파괴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생산이 지속적일수 있는 농업방식이 빨리 그리고 급진적으로 고안돼야 한다.

서울등 30개 巨大都市 20년후 出現 공동체성격 상실한 赤字都市예상

△ 2010년까지는 서울을 포함하여 세계 30개도시가 인구 2천만 내지 3천만명의 거대도시가 될 것이다. 이는 共同體성격을 상실하고 管理불가능한 赤字도시로 될 것이다.

세계人口 每年 9천5백만명 증가

△ 인구는 매년 9천5백만명씩 늘어 2025년 85억, 2050년 1백억에 이를 것이다. 2천년전 줄리어스 시저시절에 2억8천만이었던 지구상의 인구가 1789년엔 10억, 1945년 20억, 80년 50억에 이르러 금세기 들어서의 人口급증은 이제 전쟁의 개념을 바꾸어 새 생각, 새 감각으로 환경전쟁을 치러야한다. 인구 기술 환경에 새 軌道를 세워야 한다.

地球의 生存戰略……

全人類的으로 地域사정따라 施行해야

△ 환경파괴와 地球生存전략에서도 南과 北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은 全地球의 全人類的으로 하고 行動과 우선순위는 각 지역에 맞추어 즉각 시행해야 한다.

참으로 많은 웅변들이 UN사무총장 大主教 牧師 大僧正 스님 總理 議長 上院議員 노벨平和賞 수상자 小說家 言論人들에 의하여 벌어졌다.

그 웅변보다는 소련의 科學院 副院長이요 인민대의원이며 국제환경재단 의장이며 창설자인 벨리코브박사의 지구적환경교육프로그램은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

환경에 關한 人類教室운영 人類교과서로 人類教育시키자

환경에 관한 人類教室을 운영하고 人類教科書를 편찬하고 人類教育을 시키자는 것이다. 이미 3년전부터 화학공장대폭발의 재앙이 일어났던 인도 보팔고등학생과 원자력발전 火災사고로 세계에 알려진 소련의 체르노빌 고등학교 학생들이 서로 교환 방문하여 現場교실을 가졌으며 美蘇간에 37개 학교가 서로 교환 방문하여 공해에서 군축까지 인류의 환경문제를 토론하고 현장답사를 하고있다.

1년에 3천명 정도의 학생이 소련을 방문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極東지역은 아직 없고 韓國과도 하고싶다는 뜻을 밝혔다. 크렘린의 聖조지홀로 가는 길 회랑을 걸으며 군축 에너지 환경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고문인 벨리코브와의 대화가 실현됐으면 한다.

바이칼湖水의 水面溫度가 우리나라 겨울추위를 결정하는 韓蘇환경의 긴밀성을 兩國의 어린 학생들로부터 實感하는 것이 이들의 장래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벨리코브는 人類教室 人類교과서 아이디어가 美國訪問때 나왔다고 했다.

惑星의 한種으로서의 人間이…

惑星의 衛生과 生命을 지켜갈 것인가

고르바초프가 레이건과 회담차 訪美하여 어느 고등학교에 들렀더니 未來는 우리들것인데 왜 당신네

노인들끼리 말하느냐고 한 학생이 대들더라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가난 不足 굴욕 恨을 보상받기 위하여 現在와 未來를 더욱 착취하고 있는것이 아닐까.

地球는 人間이 主人도 아니다 3천萬種의 生物의 共同인 것이다

타임誌의 환경특집을 꾸뻐던 찰스 알렉산더국장은 언론인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아주 감동적인 말을 했다. 『나는 내 아들과 거닐며 환경의 오염을 보면 신문기자로서의 자격을 넘어 내 부모와 내가 내 아들의 장래를 훑친 것으로 느낀다』고.

지금 우리는 父母가 자식을 얼마나 키울수 있는지를 말할 때가 아니다. 이 惑星인 지구가, 지구와 함께 돌고 있는 이 太陽系가 人類를 얼마나 키울수 있느냐를 물어야 한다. 人間家族이란 말도 이젠 너무 좁다. 지구의 共同家屋, 惑星위의 한種으로서의 人間이 이 惑星의 衛生을, 그리고 生命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지구는 人間만의 것이 아니다. 人間이 主人도 아니다. 3천만種의 生物의 共同의 것이다.」 일본측 주최자인 마쓰무라 아키오의 말이다. 미국 인디언중 오논다가族의 元老오드비 세난도女史는 자기부족엔 자연이란 말이 없다고 했다. 자연과 인간이 따로 있지 않고 자연은 생활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제 인간은 자연에 이기고 지는 싸움에서 지고 이기는 싸움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도 있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崇山스님은 환경파괴는 동물을 많이 죽인 人間の 업보라고 단언했다.

技術환경 生活軌道 修正않으면 200萬年の 人類存在史는 끝장

人間 기술 환경 생활은 중대한 軌道수정을 지금 바로, 전체가 하나되어 全지구적 太陽系的 차원에서 해야만 한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지 않으면 「創造主에 대한 犯罪」 환경파괴는 2백만년의 호모사피엔스 存在史를 지울 것이다. 인류의 自殺을 막기 위하여 인간의 삶의 가치도 佛敎와 간디의 검손과 질박과 초탈쪽으로 기우는 것이 보인다.